



브라질의 의료 프로그램인 '더 많은 의사들(Mais Medicos)'로 부터 쿠바 정부는 철수했다. 당시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은 여러 나라들과 제휴함으로써 브라질의 의료 소외 지역에 더 많은 의료 전문가를 파견할 거라 약속했다.

쿠바의 사회주의 정권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포착했고, 가장 큰 규모의 파견국인 브라질에 거의 2만 명에 달하는 쿠바 의료 전문가를 파견했다. 11월 초 현재 8,300명 이상의 의료진이 브라질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의사들과는 달리 쿠바 의료진은 이 프로그램에서 봉급을 받지 못했다. 프로그램 시작 당시 쿠바와 브라질 정부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쿠바 정부가 그들 급여의 74%를 압수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쿠바 의료진은 그들의 가족을 브라질로 데려오지 못했다. 쿠바 정부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것을 금지한 이유는 쿠바 의사들의 브라질 망명을 막기 위해서였다. 즉, 사회주의적 노동자 천국에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인질로 잡혀 있었던 것이다.

## 사회주의의 탐욕

10월 말 대통령 선거 며칠 후, 우파 성향의 브라질의 신임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는 즉각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쿠바 의료진에게 의료비 전액 지급이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그들의 가족들이 원한다면 브라질로 올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브라질에 머무르기 원하는 쿠바 의사들에게 망명의 기회 또한 제안했다.

이에 쿠바 정부는 쿠바인들의 존엄성과 이타심은 의심받을 수 없다며 이 새로운 조건들을 즉각 거부했다. 하지만 쿠바 정부의 이러한 대응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준다. 사회주의 정권은 마르크스주의의 핵심 가치인 "과잉 노동"과 "노동자 착취"와 같은 개념을 신봉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자신들의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심지어 그들의 가족까지도 힘들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자보다도 더 탐욕스럽고 인간 노동을 더 악랄하게 이용한다는 것이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fee.org/articles/cuba-s-exit-from-brazil-s-more-doctors-program-reveals-the-exploitative-nature-of-socialism/>